

November 20, 2019

## Americas

**Verdeca의 HB4® 내건성 및 제초제내성 대두, 파라과이에서 상업화 승인을 받다**

파라과이 농업부 장관은 농업 및 임업 국가바이오안전성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 Biosafety)를 통해 HB4® 내건성 및 제초제내성 대두에 대한 상업화를 승인했다.

HB4® 후대교배종은 품질개선, 스트레스 완화 및 영농관리를 통해 대두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발된 형질들의 파이프라인에서 나온 Verdeca사의 최신 제품이다.

ISAAA의 2018 글로벌 생명공학작물 상용화 현황(*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 2018*)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2018년에 335만 헥타르의 생명공학대두를 재배하였다. 이번의 새로운 승인으로 HB4® 형질은 현재 전세계 대두 시장의 80% 이상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 HB4® 형질은 이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규제자료 제출이 검토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상업적 출시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2020년 후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erdeca](#)

## Europe

**치명적인 물푸레나무 잎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유전자 발견**

런던 퀸 메리 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큐 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의 연구진들은 영국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물푸레역병(ash dieback)에 대한 저항성의 유전적 기원을 동정했다. 연구진들은 물푸레역병 저항

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기 위해 1,250그루 이상의 물푸레나무에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이 샘플들은 영국 남동부 14개 지역에 걸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임업 연구(Forest Research) 대량 검정 포장내의 물푸레나무로부터 수집했다. 물푸레나무 역병저항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많은 유전자들은 이전에 다른 종의 질병이나 병원체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유전자들과 유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website](#)

## Research

### 생명공학전문가 패널, CRISPR 기술은 농업생산을 변화시킬 수 있어

2019년 11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8차 식량 농업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에 관한 총회에서 CRISPR 기술과 이 기술의 농업 생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패널 토론회가 미국 유엔사 및 미국 대사관의 후원을 받았다. 전문가 패널은 CRISPR 기술이 전세계 식량 안보의 불안감에 맞서 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설명했다.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혁신유전학연구소의 농업유전체학 과학부문 책임자인 Brian Staskawicz 박사, 괴팅겐대 국제식품경제학 및 농촌개발부 교수인 Martin Qaim 박사, 생명공학혁신기구의 식품농업 부문의 과학규제 담당 수석 책임자인 Clint Nesbitt 박사이다.

패널 위원들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식물과 동물의 유전인자들을 변화시켜 왔으며, 유전자편집은 풍부한 식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최신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 자원도 점점 고갈되면서, CRISPR과 같은 유전자도구가 더 많은 땅과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충제 사용과 오염을 줄이고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O website](#)